

여수산단서 화이트바이오 친환경 화학산업 육성

전남TP 화학산업센터 개소 168억 투입 미래혁신지구

여수시 국가산단 내 미래혁신지구에 전남테크노파크 화학산업센터가 문을 열었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 내 미래혁신지구에 전남테크노파크 화학산업센터(화학센터)를 개소하고 화이트바이오산업 등 전남 친환경 화학산업 육성에 나선다.

화학산업센터는 전남도 박창환 정무부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도·시의원, 미래혁신지구 연구기관 관계자, GS칼텍스, 남해화학 등 지역 화학기업 40여 개 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개소식을 하고 힘차게 출발했다.

전남테크노파크 화학센터는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인 '분해성 고분자 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 공모' 선정 사업으로 건립됐다.

국비 6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68억 원을 들여 부지 4743㎡에 건축 연면적 2090㎡, 지상 2층 규모로 신축됐다.

친환경 화학산업 실증을 위한 시제품 생산, 시험, 분석 등 18종의 친환경 화학산업 핵심 장비를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의 친환경 화학 산업으로 전환 지원을 제공한다.

시는 전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 화학산업 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 화학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화학 관련 사업을 기획해 추진한다.

여수국가산업단지를 화이트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연결해 국내 친환경 화학산업의 허브로 조성할 방침이다.

'친환경 화학산업'은 기존의 석유화학 기반의 온실가스 다배출 화학산업에 반해 바이오매스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한 화이트바이오산업과,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아우르는 산업이다.



여수시는 지난달 29일 여수국가산단 내 미래혁신지구에 전남테크노파크 화학산업센터를 개소식을 가졌다. **여수시 제공**

화이트바이오 산업(바이오화학 산업)은 바이오 기술이 접목된 친환경 화학·에너지 산업이다. 플라스틱 순환경제는 기존의 물리적 재활용의 개념을 넘어 재활용 기술을 도입해 신규로 투입되는 천연 자원의 양과 폐기되는 물질의 양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탄소 저감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분해성 고분자소재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며 "화학산업 센터를 중심으로 미래혁신지구가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가는 지역혁신연구단지로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여수=이정기 기자

신안 흑산도 해안 고래 뼈 2점 발견

20m 이상 대왕고래 추정

신안군은 지난달 25일 흑산면 하태도 해안에서 고래 뼈 2점이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흑산도에서 30km 떨어진 부속 섬(하태도)에 서식하던 고래가 죽어 바다 모래층 속에 있던 고래 뼈가 강한 파도에 해안으로 밀려온 것으로 보인다.

뼈는 전체 고래 뼈 일부인 두개골이 시작되는 부위 골격으로 (길이 140cm), 실제 크기는 20m 이상의 대왕고래(흰긴수염), 참고래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흥어로 유명한 흑산도는 일제강점기인 1916년 포경 근거지를 설치해 우리나라에서 포획된 고래 8257마리 중 25% 이상이 흑산도 근해에서 잡혔다.

당시 흑산도에는 조선총독부에서 직원을 파견했으며 일본 어민들이 집단 상주하는 주거촌과 고래뼈 신사가 있었다.

광복 후에도 고래잡이의 중심지로 포경이 금지된 1986년까지 고래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장관을 이루었다. 박우량 군수는 "흑산도에 조성된 고래정원을 통해 홍보하고 대형 고래들이 다시 흑산도에 서식할 수 있도록 해양 생태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지리산 노고단 일주 도로 제한 구례군, 탄력적 통행 위해

구례군은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 도로 구간(천은사 입구~달궁삼거리)의 탄력적(단계별)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갑작스러운 강설 및 시암재 휴게소~성삼재 구간 낙석 공사에 따라 탄력적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 구례군은 매년 기후 여건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에 통행 제한을 실시해 왔다.

올해는 관광객의 편의와 관광 수익 증대를 위해 응급차량과 구례군에 등록된 택시 등은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월동 장비를 장착하고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례=김상현 기자**



신안군은 지난달 25일 흑산면 하태도 해안 바다 모래층 속에 있던 고래뼈 2점을 발견했다. 실제 크기는 20m 이상 크기의 대왕고래(흰긴수염), 참고래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영광군, 도로부지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

자유점유 인정 소송 3건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항소심까지 이어가는 2년여의 긴 법적공방 끝에 이번 11월 말 3건 승소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도로는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로에 편입된 토지 상당수가 사유지로 남아있어 후손들의 보상요구 및 소송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자료가 6·25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거나 없어져 증

거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소송 승소사례가 전무했다.

영광군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사건토지와 유사한 사유지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영광읍 일방로 구간에 유사 필지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체 토지를 보상할 경우 약 3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군의 재정적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담당 부서는 특별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유사소송 판례분석과 타시군 사례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 및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과정을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

는 방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영광군은 일제강점기 도로 취득에 관한 근거, 당시 신문기사 자료, 영광군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정황 등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취득시효 완성 및 사유지를 무단점유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최근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할 수 있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영광군의 자주점유를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유사소송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며 예산 손실을 예방했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보성군 “내년 예산안 증가율 도내 최고”

6581억원 편성… 6.11% 증가

보성군은 2024년 본예산안이 6.11% 증가해 전남도 22개 시·군 중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성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금을 2023년 본예산 대비 331억원

(13.85%) 증가한 2726억원을 확보, 본예산안을 증액 편성했다.

주요 증가 국·도비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지원사업 658억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44억원,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21억원, 대규모 산림복원 및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 40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9억원, 벌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53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사업에 60억원 등이다.

김철우 군수는 "부족한 세수는 그 동안 적립해 온 재정안정화 기금 1500억원을 투입해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과 대형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중단없는 보성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최근 6581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 **양기람 기자**

어려운 이웃에 김장김치 나눔 여수 여서동지사협

여수시 여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현연)가 지난달 29일 직원과 통장단, 부녀회 등 50여 명과 함께 '따뜻한 우리동네 여서동 김장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30일 여수시 여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김장김치를 관내 독거어르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 취약계층 90가구에 전달했다.

이현연 여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에 사랑과 온정이 닿길 바라며 이웃 어려움을 살피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한 밥 한상 꾸러미 사업, 독거노인 안부확인 건강 음료 배달, 사랑의 빵 굽기 등 주민들에게 봉사 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완도 고향사랑기부제 급증 11월 이후 2000여명 늘어

완도군은 30일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11월 이후 늘면서 기부자가 2000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군에 따르면 11월(27일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건수가 300여건으로 지난 10월 대비 2.5배 늘었다.

지난 1월 이후 완도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는 2000명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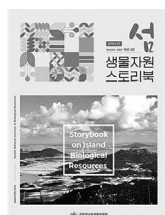
완도군이 타 시·군과 상호 기부를 위해 맞춤형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지를 제작·배부한 것도 호응을 얻고 있다.

완도군 공직자를 비롯해 완도군의회, 완도군산림조합, 완도농협, 소안수협, 금일읍 이장단 등 유관기관·단체들도 상호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완도군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향우와 함께 인생네트 스티커 사진 찍기, 고향사랑 추억의 뽑기, 삼삼한 완도사랑 이벤트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체전, 슬로걷기축제, 장보고한상여워드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 때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완도=최경철 기자**

‘섬 생물자원 스토리북 압태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발간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신안 압태도에서 생육하는 식물 5종과 버섯 5종의 정보를 담은 '섬 생물자원 스토리북 vol. 2 압태도편(사진)'을 발간했다.

총 34페이지인 압태도편은 일제강점기 항일농민운동 전국 확산에 계기가 된 소작쟁의 발발지 압태도에서 만날 수 있는 식물과 버섯에 대한 설화나 전통식식과 함께 식물 표본 사진과 같은 시각 자료를 곁들여 읽어볼 수 있도록 꾸몄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전시관에 비치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자원관 두 번째 스토리북으로 신안 압태도 자생생물을 주인공으로 제작됐다.

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생물융합연구실장은 "매년 생물자원 정보를 담은 스토리북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